

북한산도로 조기 해결될 전망 노선검토위 구성방법 등 논의

수경스님, 추 건교부차관 등 만나 철마선원 철거중지 등 3개항 요구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가 노선검토위 구성 등 불교계 요구가 일정정도 수렴되면서 빠른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마선원 철거단행 가져본 관결의 집행시한(9월)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경스님(철마선원장), 현응스님(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건설교통부 추병직 차관, 서울고속도로(주) 최병권사장이 10일 시내 모처에서 만나 노선검토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수경스님은 △연말까지 관동도로 건설 중지 △철마선원 철거중지 △노선검토위 구성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차관과 서울고속도로(주) 최병권사장은 철마선원 강제철거 중지, 노선검토위 구성에 대한 불교계 요구에 공감했

다. 그러나 연말까지 관동도로 건설 중지에 부분에서는 "12월까지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느냐"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12일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한다.

회의 이후 기자와 만난 현응스님은 "노선검토위원회 구성, 공사중단 기간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며 "불교계에서 합의를 통한 해결과 국민의견수렴 결과 승복을 전

현재 양측의 협상 중 큰 걸림돌은 건설중지 기간 문제. 불교계에서는 연말까지 공회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결과를 차기정부에 넘겨지는 것이지만 건교부와 서울고속도로(주)는 기간을 단축, 빠른 시일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유신 기자

LG제품 불매운동본부 불교계, 13일 발족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대불령 등 11개 불교 신단체들은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하는 LG제품 불매운동 추진본부'를 13일 발족시키고 LG제품 불매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LG제품 불매운동 추진본부는 서울 경기지역 150여 개 주요사찰과 서울시 지하철 역내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시민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LG제품 불매운동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nia.com

불교명상학과 개설 서울불교대학원대학

9월 개교하는 서울불교대학원대학(총장 목정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명상학과를 개설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현재 개설돼 있는 '불교학과'를 '불교명상학과'로 바꾸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명상학과는 불교교학 전공과 명상치료 전공으로 나눠지게 되며 불교교학 전공자는 포교사 자격증을, 명상치료전공자는 명상치료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02-808-6582. 권형진 기자 jny@buddhania.com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왼쪽에서 두번째)와 소속의원들이 교구본사 주지스님을과의견을 나누고 있다.



○본사주지연합회장 법정스님이 북한산 관동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노무현 후보(왼쪽에서 두번째)가 경청하고 있다.

정치권 '북한산 공사' 연기 긍정적

노무현 후보, 특대위 구성·최고위원회의 상정 이회창 후보, 관련예산 삭감·법개정 등 검토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과 관련, 민주당이 정세균의원(건교위 소속) 등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산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도 북한산 철마선원 철거 저지 및 공사 연기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역사 법정, 해인사 세민, 조계사 지홍, 송광사 현봉, 풍도사 현문 스님 등 교구본사주지연합회 스님 10명과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조계종 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응스님 등은 9일과 10일 잇달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및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회동을 갖고 북한산 관동도로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0일 회동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임채정, 조성준, 정세균, 이미경 의원으로 특별대책위를 구성하고 북한산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9일 조선훈에서의 간담회에서 이회창 후보는 "북한산 관동도로를 반대하는 불교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북한산 관동도로 관련 예산 삭감, 법개정 등을 통해 북한산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에게 △연말까지 북한산 관동도로 건설 중지 △공사중지 기간 동안 노선검토위원회

북대표 참가 첫 서울 8·15법회

16일 조계사, 심상진 서기장 등 참가

분단이후 남한지역에서 처음으로 대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심상진 서기장등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이 참가하는 8·15남북합동법회가 개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주관하는 '조국광복 57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조계사에서 종단협의회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심상진 서기장등 조선불교도연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합동법회는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 대표단의 타종을 시작으로 삼귀의 축원, 대회사, 정대스님 법어, 남북 불자들에게 전하는 통일메시지 낭독, 남북 공동발원문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김원우 기자

여름휴가 관계로 이번주 16면 발행 따라서 교리 등 일부 지면 쉽니다.

법적 조대 마하 고사난다

“오직 자비심과 올바른 집중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구제(救濟)와 행복에 대해 책임을 지어줍니다. 자비행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보살행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우리를 무명에서 광명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지내면 내용은 8·9면

뉴스속뉴스

인도차원 대북 쌀 지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가톨릭, 원불교, 개신교 등 7대 종교 대표들이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즉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7대 종교 대표들은 “정치적 견해나 경제적 이해독실에 얽매이지 않고 순수하고도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천명했다.

이번 7대 종교대표들의 민족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는 지난달 발생한 서해교전으로 국민들의 연방은 감정과 불안이 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과 정부에 중단된 대북지원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7대종교 대표들이 제기한 대북 쌀 지원문제는 동북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중국에서 떠돌고 있는 북한난민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올해 막사이사이상 수상자인 법륜스님이 얘기했듯 2천500만 북한주민중 약 300만명 정도가 식량난으로 인해 사망한 상황에서 쌀 지원은 오직 동북에 차원에서 순수하게 접근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남북관계는 개인과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족의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고 남북과 북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새로운 전기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됐으면 한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원찰

1. 신도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나가는 원찰이 있으십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원찰이 있다면 몇 곳입니까?
①1곳 ②2곳 ③3곳 ④4곳 이상

설문 참여: 8월 15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3호 9면에 실립니다.

광복 57돌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광복 57돌을 맞이하여 남북의 불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을 기원하는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봉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이 조계사를 방문하여 합동법회를 함께 봉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불기2546(2002)년 8월 16일 (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조계사 대웅전
-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문의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02-720-0531) 한국불교종단협의회 (02-732-4885)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겨레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부르던 때로부터 선일공제가 되는 역사의 날 8.15를 맞으며 남북의 전체 사부대중들은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열고 통일의 한마음 기울여 부처님 전에 삼가 서원을 올립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6.15공동선언의 탄생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은 겨레의 가슴에 맺힌 아픔의 응어리를 풀여주며 어서오라 통일의 그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겨레 모두가 반목과 대결에서 벗어나 화해와 단합의 새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북의 각계종 대표들이 남녘에 내려와 8.15 민족통일행사에 참가하여 통일의 열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통일의 앞길을 밝힌 6.15 공동선언이 이렇게 우리 겨레, 우리 불자 모두를 통일의 한길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틀림없이 실천하면 그것이 곧 통일이고 부정한 것은 곧 대결과 분열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닥아선다해도 하나로 뭉쳐 6.15공동선언의 철저한 고수와 그 실천행에 응명정진하겠습니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겨레, 우리 불자 모두입니다. 그 어떤 외세도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현실참여행에 떨쳐 나설 것입니다.

통일의 과정은 남북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간의 상생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이 남북 북이 다같이 이롭고 함께 공존공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 겨레, 우리 불자 모두는 민족도, 핏줄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하나로서 헤어져서는 제대로 살수 없는 하나의 동포형제들이며 이 나라, 이 땅도 하나의 3천리 조국강토입니다. 우리들은 풀이 아닌 하나, 통일조국을 인아오는 이 길이 아무리 어렵고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통일을 가로막는 난관이 아무리 많아도 통일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은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이땅우에 반드시 하나의 통일조국, 지상정토를 세우고야 할 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언제나 불을 내리 주십시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그대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되고 우리가 행하는 불사 하나하나가 모두 통일에 기여하는 선업이 되도록 가호를 내려주십시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불기 2546(2002)년 8월 15일

“광복 57돌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합동법회” 참가 사부대중

※ 전국의 각 사찰에서는 8월 15일 칠석 법회 시 통일기원 타종(5타)과 함께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